

빌 마운스 박사, 산상 설교

13강, 마태복음 6:25 이하, 걱정과 신의 신뢰

© 2024 Bill Mounce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산상 설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빌 마운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3, 마태복음 6:25, 그리고 그 다음, 걱정과 신을 신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산상 설교를 마무리할 것이고, 한 번 말해야 했지만, 산상 설교와 꽤 흥미로운 구절들을 다룰 것입니다.

제 말은, 흥미로웠지만, 오늘 살펴볼 정말 매혹적이고 도전적인 구절이 몇 개 있는데, 인생을 바꿀 만한 구절들이죠. 그럼, 안녕하세요. 우리는 이 부분을 하단 절반에서 시작했는데, 오, 기도합시다, 미안해요.

아버지, 우리는 걱정의 주제, 비판적인 수다스러운 정신의 주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도전의 주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들은 어려운 주제이고 제가 수업에서 전달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당신이 그들의 마음, 학생들의 마음과 정신에서 일하시고, 앞으로 며칠과 몇 주 동안 그들의 마음에 구절과 가르침을 가져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설교에 영향을 미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하며, 그들이 이것을 그들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가르침 중 일부에 대해 그들에게 도전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당신의 설교가 너무 답답해서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당신이 우리와 함께 여정을 떠나는 인내심 많은 신이시어 감사합니다. 이 구절들이 무슨 뜻인지 계속해서 배우는 동안 당신의 인내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좋아요,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갔는데, 25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제 생각에 25절에서 34절까지는 제가 일련의 묘사적 내용을 적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신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탐구적이고, 좌절스럽고, 확신시키고, 격려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우리 모두를 확신시키는 구절이며, 동시에 우리를 확신시킵니다. 저는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격려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걱정하는 걸 좋아하죠, 맞죠? 그게 제 영적 선물이에요. 제 선물이에요. 카터가 약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걱정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 말은, 그게 제 선물이에요. 제 아내는 제가 걱정하는 것에 놀랐어요. 나아지고 있어요.

인생이 여행이라는 건 좋은 일이지만, 어딘가를 여행할 때, 지금 차가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할지 끊임없이 궁금해요. 돌아갈까, 아니면 앞으로 갈까? 마지막 주유소는 어디였을까? 가장 가까운 진입로나 진입로가 어디일까? 지금 차가 고장 났을 때 견인차가 우리를 어디로 견인해 갈까 궁금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당신을 놀라게 할 만한 걱정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것에 대해 정말 확신을 가졌고, 사실 몇 년 전에 산상수훈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는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님, 이걸 제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나아지고 있어요. 우리 트럭은 16만, 우리 지프는 12만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은 아주 현실적인 가능성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 걱정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 모두 걱정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 일부는, 제 생각에, 그것이 우리에게 통제의 환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걱정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제 아빠는 걱정은 인용하자면,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보기에 좋은 표현이네요. 당신과 내가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걱정할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니면 최소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맞죠? 그리고 그것은 죄입니다. 빌립보서 4:6~7.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이 모든 걱정은 제 마음에 소중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것에 대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도전입니다. 좋아요.

6장의 맥락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충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그러므로"로 시작하면서 그는 부를 신뢰하기보다는 부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부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세상적인 보물을 모으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세상의 보물을 모으지 않을 테니,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리고 논쟁, 논쟁의 흐름은 우리 자신의 돈 버는 능력을 신뢰하는 대신, 우리는 신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a,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25절에서 자신의 논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말하건데, 걱정하지 마. 알았어, 다른 건 다 해설이야. 걱정하지 마, 글썄, 그게 다야.

그게 논제입니다. 왜 당신은 걱정합니까? 만약 우리의 주인에 대한 충성심에 비추어, 이전 섹션, 그가 당신을 돌볼지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당신의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몸을 지탱하고, 당신의 삶을 지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논제입니다. 전부 읽어 볼게요. 그러니, 내가 말하건데, 당신의 삶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인생이란,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니, 몸이나 입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미안해요. 그렇죠.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지 않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당신의 논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있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 설교 시리즈 중 하나는 세계관에 대한 설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음식보다 삶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입는 것 외에도 삶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삶과 물건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거대한 진술이며,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25절의 논제입니다.

그러면 그가 할 일은 걱정하지 말라는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일련의 세 가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26절에 있는데, 음식에 대한 자연으로부터의 교훈입니다. 그는 비유를 그릴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은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저장하지 않지만,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물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라.

그는 그것을 창조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유지했습니다. 당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는 요점을 짚어냅니다. 당신은 그들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공중의 새들을 그저 번역 부족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강조된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그것은 주의 깊게 보는 것, 멈추는 것, 공부하는 것,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번역본 중에 그런 말이 있나요? 주의 깊게 보거나 그런 식으로 하라고 말하는 번역본이 있나요? 네, 안타까운 일이에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가끔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게 너무 많이 번역되었거나 번역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요점을 정확히 짚지 못해요.

아가파오 같은 사랑 은 뭐예요 ? 그리고 당신은, 알다시피, 당신은 그냥, 당신은 할 수 없어요, 그건 해설이에요. 설교예요.

하지만 여기서 그 단어는 그리스어로, 주의 깊게 보는 것, 배우는 것을 뜻합니다. 네, consider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emb lepo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사실, 단어 look의 강조 형태이지만, 요점은 고려하는 것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 한 사람이, 그는 Dallas 교수인데, Lexham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는 번역하는 데 있어 사회적 번역 관습에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새들을 주의 깊게 보세요. 관찰하고, 연구하고, 배우세요. 그들은 음식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나오는 몇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자연을 볼 때, 우리는 신이 공급해 주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그래, 새들은 죽는다. 그래, 우리도 죽는다.

하지만 그는 새들을 돌봐. 나는 우리 오두막에 있어. 나는 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걸 좋아해.

마치 신이 우리에게 지구를 돌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그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땅콩과 새 모이를 많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내놓은 걸 보면 저는 새들이 먹는 걸 보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그저 먹고 먹고 먹고 먹고 또 먹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것은, 그것은, 다람쥐가 올 때까지 20마리의 작은 새들의 삶을 유지하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람쥐 방지 새장 같은 건 없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가게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중 어느 것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는 제이크라는 다람쥐가 있어요. 그는 다락방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그를 다락방에 살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너무 순해서 우리 손에서 땅콩을 먹어치웁니다. 제 매형이 한 번 집에 왔습니다

.

그리고 그는 하루 종일 제이크에게 먹이를 주며 지냈습니다. 제이크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발가락 사이에 땅콩을 끼우고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이크가 왔는데 테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이크는 자신의 발가락이 땅콩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아팠습니다.

그게 아팠어요. 하지만 어쨌든, 모르겠어요. 알다시피,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든 무엇이든, 신이 제공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자연을 보고, 신이 그들을 돌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새는 창조되지 않습니다. 다락방에 있는 새에 대해 말하자면, 좋아요, 네, 바로 위에 새가 하나 있습니다. 신이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는 새들보다 더 귀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새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셋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걱정의 잘못된 점입니다. 걱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것을 유지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새들을 대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대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글쎄요, 어렵죠? 글쎄요, 저는 그렇죠. 걱정하기 너무 쉽거든요. 목사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직업이 아니에요. 몇몇을 제외하면요.

아시다시피, 걱정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신은 공급하시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고든-콘웰에서 일하기 위해 보스턴으로 이사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스포칸에 있는 우리 집을 팔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곳을 다 시도했지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돈을 충분히 들이지 않고 임대하게 됐어요. 보스턴은 정말 정말 비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 없던 더 큰 집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록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될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전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고든-콘웰에 가기를 원하신다고 매우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걱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몇 년 후, 우리는 스포칸에 있는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돌아가서, 이런 경험이 있다면, 돌아가서 예산을 세우고, 수입을 보고, 지출을 보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제 말은,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올리브 오일, 오일 항아리는 비지 않죠? 엘리야, 저 사람 엘리야예요? 네. 타이어는 닳지 않아요.

자동차는 고장나지 않습니다. 옷은 필요 이상으로 오래갑니다. 아시다시피, 하느님은 우리가 그분이 부르신 일을 할 때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은 우리가 새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 새를 돌보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보다 무한히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27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것은 단지 상식일 뿐입니다. 글썄요, 걱정하는 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7절, 여러분 중 누구든지 걱정함으로써 수명을 한 시간 더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어는 모호합니다. 아시다시피, 키에 큐빗이나 다른 것을 더할 수 있습니까? 인치입니까? 다른 하나는, 각주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좋아요, 그렇죠, 큐빗을 더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번역 문제일 뿐이에요. 사실, 저는 어차피 텍스트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네, 그냥 상식적인 얘기죠. 왜 걱정하세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걱정해도, 인생에 단 한 시간도 더할 수 없어요.

그러니, 그것은 상식일 뿐입니다. 걱정이 실제로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수명을 한 시간 늘리거나 키를 18인치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입니다. 스토트는 169쪽에서 그것을 정말 잘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걱정은 낭비입니다. 시간, 생각, 신경 에너지의 낭비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미래를 계획해야 하지만, 미래에 대해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의 고민은 하루로 충분하고, 매일은 그 자체로 충분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상해야 할까요? 예상한다면, 우리는 두 배로 고민을 겪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번 걱정한 것이 헛수고입니다. 만약 실현된다면, 우리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걱정한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걱정은 문제를 두 배로 만듭니다.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걱정은, 저는 걱정이 실제로 그보다 더 나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당신과 내가 걱정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은 신에게 우리가 신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족 관계라도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배우자나 아이들이 와서, 아빠, 저는 오늘 밤은 제게 먹을 것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이나 딸이 당신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옷을 입힐 만큼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지 걱정할 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27절의 두 번째 이유는 상식일 뿐입니다. 걱정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28절에서 30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자연으로 돌아가서, 여기 옷에 대한 자연으로부터의 교훈이 있다고 말합니다. 네, 첫 번째 교훈은 음식에 대한 것이었고, 이 교훈은 옷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8절에서 30절. 왜 옷에 대해 걱정하느냐?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실도 짓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나는 솔로몬이 그의 모든 영광 가운데서도 이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아니하였노라. 오늘 있고 내일은 불에 던져질 들꽃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믿음이 적은 너희는 하물며 더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사역 초기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로 향하신 것은 그분에게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오 믿음이 적은 너희여.

그래서, 신은 식물의 생명을 창조하고 신은 식물의 생명을 유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꽃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이 들판의 꽃보다 우리를 더 잘 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것이 믿음의 문제인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가 당신을 믿음이 없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당신이 다른 모든 것을 창조하고 유지하며, 당신을 창조하고 나를 창조한 신이 그가 우리에게 준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을 만큼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설교 시리즈에는 이 작은 믿음에 대한 별도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깐 들러서 작은 믿음에 대해 몇 가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본문을 떠나 이 구절에 대한 설명만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믿음이 적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라고 말합니다. 글썄요, 우리 모두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는 구원에 필요한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고 믿을 만큼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의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아버지 께로 가는 길을 주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적다면, 그것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만큼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오, 어머니, 어느 쪽이 더 어려웠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죽어서 우리에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주는 것과 그의 자녀들을 부양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어려웠을까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가 조금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을 때, 우리는 첫 번째 것에 대한 믿음은 충분하지만, 두 번째 것에 대한 믿음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의 지탱하는 힘, 우리에게 음식, 옷, 거처를 주시는 지탱하는 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씀하십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근심을 그에게 맡기십시오. 그가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7, 베드로가 말했듯이.

하지만 그렇게 할 만큼 충분한 믿음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적은 범주에 속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불안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의 설교와 멘토링,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통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것이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그와의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그는 우리와 관계 속에서 사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그가 자신이 말한 사람인지, 그가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게 기반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런 종류의 믿음에서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훌륭한 설교 시리즈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낸 요점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래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신뢰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배우자가 믿음이 없고 당신이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결혼 생활이나 가족에서 일어날 파괴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반대로, 믿음에 대해 배우는 것의 일부는, 아니, 우리는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제가 14번 고속도로, 우리가 여행하는 14번 고속도로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때, 제가 견인차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제가 여전히 셀 범위 내에 있는지 걱정하며 앉아 있을 때, 그것은 죄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 중 일부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고, 저는 이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나는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해. 나는 걱정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해. 신뢰가 부족한 채로 사는 건 모욕적이고 비논리적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용납될 수 없는 것은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으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 안에서 전진하는 것의 일부는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한다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에서 성장하는 두 번째 단계는 올바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그는 새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멈추세요. 숨을 쉬세요. 걱정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세요.

주변을 살펴보세요. 동물들이 어떻게 돌보아지는지 살펴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먹는지 살펴보세요.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세요. 시간을 내어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글썄요, 보세요, 신이 나를 사랑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가 나를 계속 돌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는 이미 정말 어려운 일을 마쳤습니다.

그는 내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성 있는 살의 마음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가 나를 돌봐줄 것이라고 왜 믿지 않겠습니까? 이 중 일부는 그냥 멈추고 생각하고 머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저는 Martin Lloyd Jones의 인용문을 찾고 있지만 찾을 수 없습니다.

오, 글썄, 나올 거야. 그리고 가끔은, 우리는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는 그냥 해야 해.

우리는, 알다시피, 신이 말씀하셨죠, 나는 당신이 가족과 집과 안락함을 떠나 보스턴으로 가서 고든 콘웰에서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오, 세상에,

저는 여기서 편안해지고 있을 뿐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믿음에서 벗어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안한 자리에 머무르는 한, 우리가 사람들을 알고 급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곳에 머무르는 한. 그리고 아시다시피, 당신의 배우자가 어느 날 당신에게 와서, 우리가 행성 교회라고 불리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정말요? 글썄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즉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 다시 와. 알아? 네가 옳다고 생각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어머, 난 뭘 해서 살아야 할까? 어디서 살까? 어떻게 아이들을 돌볼까? 어떻게? 아, 잠깐만. 걱정이네.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에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는 데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실천하는 게 일부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제 말은, 다른 것들이 정말 많지만, 제가 감동을 받은 것 중에서 말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거기에 앉아 있고, 당신은 예수님의 새로운 제자이고, 그는 오,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 세상에, 정말 아팠을 겁니다.

당신은 새가 가진 믿음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저 잡다한 것들, 몇 가지 잡다한 것들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매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제 노트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에 대해 뭔가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매우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이 2펜스 가방으로 새를 먹이는 건가요? 메리 포핀스. 여러분은 여기서 영화를 보지 않았나요?

좋아요. 신이 새들에게 먹이를 주시나요? 그리고, 글썄요, 아니, 새들이 와서 제 새 모이통에서 먹거나, 땅에서 씨앗을 찾거나, 서로를 먹거나, 알다시피, 충분히 크다면, 우리 오두막 근처에 둥지를 튼 독수리가 있어요. 그들이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흥미로워요.

나는 독수리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 독수리는 스스로 먹이를 먹어. 매일 아침 일곱 시에 나가서 수영하고, 연못 위를 날고, 큰 늙은 블랙베이스를 잡아.

큰 늙은 블랙베이스를 가질 수 있나요? 가질 수 없죠, 그렇죠? 네. 잡을 때, 그들은 큰 블랙베이스입니다. 좋아요.

아시죠, 당신은 그들을 보고, 바라건대, 그들은 더 많은 파이크를 잡고 그들을 없애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시죠, 당신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물고기와 그들의 발톱을 보고, 당신은, 신이 정말로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가? 글썄요, 이것은 전체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것을 지나가면서 언급하려고 했지만, 이것은 매혹적인 주제입니다.

독수리가 스스로 먹이를 먹거나 작은 참새가 스스로 먹이를 먹는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이를 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세우셨고, 새들이 씨앗을 먹고 독수리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세상에 계속 관여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가 창조물을 입히고 먹이는 일을 하십니다.

보세요, 세계관이 뭐예요?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때, 내면화하고, 알았어요, 그가 제게 약간의 지능을 주었어요. 그는 제게 약간의 기회를 주었고, 제게 일자리를 주었어요.

결국 그게 나를 먹이는 게 아니야. 결국 그게 나를 입히는 게 아니야. 어제 월마트에 가서 수영복을 샀어.

우리가 갈 곳은, 음, 어디로 가는 거지? 응. 아우터뱅크스. 우리는 아우터뱅크스로 갈 거야.

아내가 저와 두 아이를 위해 호텔을 구해줬어요. 그리고 느긋하고 느린 강이 있어요. 본 적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없고, 소문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냥, 그냥, 튜브를 타고 강을 따라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갈게요. 수영복을 샀어요.

신이 나에게 그 수영복을 제공했을까? 글썄, 내가, 내가 성경적으로 세상을 생각한다면, 답은 예입니다. 내 카드가 수락된 유일한 이유는 신이 그의 은혜로 그의 창조물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꽃, 그의 아이들.

그것은 온전한 세계관입니다. 제 말은, 그중 하나는 제가 한 번 설교에서 한 간단한 코멘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장을 잃었고, 그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그를 정말, 정말 괴롭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금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저는 고정관념적인 말을 했지만, 남자들이여, 여러분의 일은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은 가족을 돌보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의 일은 가족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 구절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예배 후에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것이 정말 해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일자리를 찾을 겁니다. 일자리를 구하면 정말 열심히 일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그의 왕국을 구하면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향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일자리를 얻는 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신이 제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그저 해방의 개념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세계관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저는 걱정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그 스펙트럼의 어느 지점에 있든,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새들이 먹이를 먹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주님, 그들을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까? 강 건너편에서 사슴이 물을 길는 것을 볼 때, 주님, 당신의 멋진 동물들에게 먹이를 줄 강을 제공해 주시고, 저에게 스키를 탈 곳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까? 아시다시피, 제 말은, 그것은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를 권장합니다.

좋아요, 그럼 세 번째 이유는 옷에 대한 자연으로부터의 교훈이었습니다. 신은 그가 만든 모든 것을 창조하고 유지하십니다. 글썄요, 그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가 만든 모든 것을 유지하십니다.

우리는 새와 꽃보다 무한히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가 자신이 만든 것을 돌볼 것이라고 믿습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은 모두 매우 조용합니다. 신학적으로 너무 풍부합니다.

그냥 흡수하고 있는 거 맞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믿을 수 없지만, 그는 절대 떠나지 않아.

팀.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해고당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시험받을 거야.

무섭고 두렵습니다. 제가 본 바에 따르면, 특히 아프리카와 파나마, 에콰도르의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구원을 위해 신을 신뢰하고 보살핌을 구하는 것보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데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제3세계 국가의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데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저 너무 위험하기 때문일까요? 나이로비에서 엘도렛까지 가는 고속도로. .. 오, 이건 아프리카에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위험합니다. 정말요? 그래서, 우리는 비행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려면, 한 남자가 나이로비에서... 엘도렛으로 갔다고 하죠.

엘도렛,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의 신앙과 제가 알아차린 것은,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많은 것 뒤에 있는 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이 있습니다. 그 중 많은 부분이 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가 있다면,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살 것이다. 그래. 맞아. 맞아. 맞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좋습니다. 반복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점은 설교 뒤에 신이 있다는 것이고, 설교의 많은 부분이 신이 누구인지, 신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모두 적용 지점이지만, 계속해서 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로 돌아가게 하고, 그것이 올바른 이해인가?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이 작은 것이 겨자씨 한 알 정도인가요? 이것을 겨자씨 한 알과 비교하려면, 이것은 알보다 작다고 말해야 합니다. 겨자씨 한 알이 산을 바다에 던지는 요점은 그 힘이 여러분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다른 요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로 세인트 헬렌스 산이 태평양으로 던져지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저는 많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헬렌스를 움직이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 멀지 않은 마지막 폭발을 고려해보면, 그 힘은 실제로 산을 움직이는 신에게 있고, 이것은 우리가 종종 신의 성격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다는 다른 요점입니다.

태평양 북서부에 가본 적이 있다면 세인트 헬렌스 산을 꼭 가봐야 합니다. 5번 도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헬렌스 산과 같은 곳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터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20마일 정도까지 다가가면 갑자기 모든 나무가 쓰러진 것을 보게 되는데, 이상한 건 다 같은 방향으로 쓰러졌다는 거고, 20마일 정도 계속 날아갔어요. 헬렌스가 터졌을 때, 5마일 이내의 모든 게 산산이 조각났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스피릿 호수는 바닥에 있고, 호수 전체가 밀려났습니다. 산의 측면이 물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물이 다시 내려왔을 때, 지금은 예전보다 200피트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화산일 뿐이야. 그리고 붕괴하는 데 필요한 숫자가 들리기 시작하지. 그냥 나무를 날려버린 게 아니야.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분해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신이 우주를 존재하게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옆으로 불어지는 산일 뿐이에요. 어쨌든, 그들이 한 일은 자연 자체를 돕지 않고, 인용하지 않고, 재건하지 않는 아주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연주의자들은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보는 것은 자연스럽고... 황폐해진 땅을 재생시키는 신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저는 전에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Spirit Lake로 걸어가던 적이 있었는데, 모퉁이를 돌았는데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잠시 멈췄다. 나는 달에 있는 걸까?라고 생각했다. 정말 흥미진진한 일이었다. 사실, 내가 작업하고 있는 책의 한 장은 세인트 헬렌스 산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산에 가면 신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태평양 북서부에 가게 된다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보세요. 세인트 헬렌스 산에 가보세요. 그것과 비슷한 곳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내가 뭐였더라... 사실... 오! 체계적인 것을 택하죠. 때로는 성경에 대한 견해로 시작하죠.

하지만 모든 체계적 신학에서 첫 번째 주요 주제는 무엇일까요? 신학은 본래 신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은 신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서 나옵니다. 제 말은, 모든 것이 그것으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유지자 하나님, 관계적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아담과 이브를 털로 덮으셨을 때, 그 털은 어디서 왔을까요? 동물을 죽인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C.S. 루이스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들은 모두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확실히 친절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먹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아담에게 왔고, 그는 그들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 말은, 그는 동물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지었고, 신은 기본적으로 그의 애완동물 중 하나를 죽이고 그것을 그들에게 감았습니다. 이건 좋은 카디건이 아닙니다.

제 말은, 이것은 당신이 어느 정도 관계를 맺었던 죽은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신을 구속하는 신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은 대속적 속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말은, 모든 것이 창세기 1, 2, 3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누가 신인가?'에서 시작해요. 사실 저는 웨인의 체계신학이 성경 교리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성경 교리는 시작하기에 이해할 만한

곳이죠. 하지만 그 다음에는 모두 신학, 즉 신에 대한 말씀에서 시작해요. 알겠어요.

이제 이것 마무리해 봅시다. 결론은 31절에서 34절에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자신의 주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마실까요?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요? 그는 말합니다. 이교도들, 하나님과의 언약이나 관계 밖에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오래된 번역은 이방인인데,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는 적용됩니다. 그래서 NIV가 이교도에게 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듯이요.

이교도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이나 관계 밖에 있는 자들은, 적어도,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고, 이교도들은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제 말은, 그들은 음식과 음료와 옷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이교도들은 이런 것들을 쫓아다닙니다. 당신의 천부께서는 당신이 그것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제 말은, 그분은 멍청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옷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는 당신이 음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는 당신이 음료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당신이 걱정할 책임이 없는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먼저 그의 왕국을 구하십시오.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구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선행 조건은 무엇인가? 음식, 옷, 거처.

메르세데스-벤츠도 아니고, BMW도 아니고, 캐빈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삶의 기본 필수품. 우리의 욕심 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 .

이 모든 것들은 당신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새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주는 사람은 신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스스로를 걱정할 것입니다.

매일은 그 자체로 충분한 문제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는 31절에서 논제를 다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그는 우리에게 두 가지 마지막 이유를 제시하죠, 그렇죠? 32절에서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첫 번째 이유일 겁니다. 이방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은 믿음의 가족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

그들의 음식, 옷, 거처를 제공하는 데 전념하지 않습니다 . 이제 그는 어느 정도 그렇게 합니다. 그는 정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 비를 내리시죠, 맞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가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필수품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믿음의 자녀라면 그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이것들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마지막 이유라고만 말하고 싶습니다.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마지막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할 일은, 그는 자신의 주장을 부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33절에서 그는 전환해서 긍정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같은 것입니다.

걱정하기보다는 그분의 왕국을 구하십시오. 행복의 언어를 사용하자면, 배고픔과 목마름, 그분의 의로움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이 살아라.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자신의 왕국보다 더 중요하다. 주기도문을 기억하라: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34절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는 걱정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걱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부족함으로 채웁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는 우리의 마음이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정된 정보만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신뢰의 부족으로 채우고,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문제들과 우리의 두려움에 집중하고, 만약 우리가 우리의 걱정에서 집중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신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충분한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무엇보다도 신을 찾고, 만약 우리의 마음이 그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지혜,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걱정할 공간이 없거나 적어도 걱정할 공간이 그만큼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품에 안겨 있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냥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에게 도움이 되는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게으르거나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새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게으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교회 규율을 행사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일을 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분이시며 ,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34절에서, 저는 Martin Lloyd-Jones의 작품을 얻었습니다. 34절은 정말 농담이에요. 깔끔하죠.

내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스스로 걱정할 겁니다. 그가 내일 걱정하라고 말하지 않은 일들이 있겠지만, 내일은 그 자체의 도전 과제를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집중할 것이 충분합니다. 그러니 현재에 머물러라. 현재에 머물러라.

내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마틴 로이드-존스는 걱정은 활동적인 힘이라고 말합니다. 걱정은 큰 상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갖 것을 상상할 수 있지, 그렇지? 온갖 가능성을. 걱정은 우리를 미래로 데려가고,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걱정을 경험하게 돼. 이게 스토트가 그의 글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나?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 걱정한다면, 당신은 불필요하게 걱정하는 거야.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당신은 두 번 걱정한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걱정합니다. 당신은 내일 걱정합니다. 그러니 내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에 집중하세요. 내일은 내일만의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우리의 일상적 보안에 몰두하지 마세요.

내일은 분명 그 자체의 도전과 좌절과 함께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이 우리를 내일로 이끌어 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올 것이라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어머, 하나님의 권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신을 부양하는 방식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지, 그렇지? 내 말은, 그것이 진짜 일의 일부라는 거야. 그는 지역 노숙자 보호소에 침대를 열어서 당신을 부양할 수도 있지, 그렇지? 그리고 질문은, 당신은 그가 당신을 부양할 방법에 대한 그의 결정을 받아들일 만큼 그를 사랑하고 신뢰하느냐는 거야? 어젯밤 흥미로운 경험이었지. 글썄,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니까, 말해 줄게.

어제 돈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렇죠? 우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림을 사용했고, 저는 Chick-fil-A에 가서 복숭아 밀크셰이크를 사왔어요. 왜냐하면 Matt가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글썄요, 기본적으로 그는 그것을 암시했을 뿐,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갔고, 길모퉁이에 앉아서 돈을 구걸하는 표지판을 든 남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유했듯이, 저는 보통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다른 게 있었어요. 그의 정신이었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냥 다른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갔고, 거기에 앉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썄요, 저는 그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그를 모르고, 그의 이야기도 모르고, 그가 왜 거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Chick-fil-A에 들어갔고, 카운터 뒤에 있는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를 항상 보시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한두 번만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Chick-fil-A 저녁을 사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감사해했고, 매우

감사해했고, 그의 말을 보면 그가 다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마도 Chick-fil-A 밖에 간판이 있는 의자에 앉아서 길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지 보는 게 현명할지도 모릅니다. Waffle House나 IHOP 같은 곳일까요? 아마도 거기에 뭔가 계획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음식이 어디서 오는지 전혀 몰랐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돌보셨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제 말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사를 떠나 처음에 스포캔으로 올라갔을 때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교회 관리 소프트웨어 패키지와 기부자 관리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썼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회사가 그것을 팔려고 했습니다. 저는 Azusa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Spokane으로 이사를 갔고, 얼마 동안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었고, 그들은 저에게 돈을 지불할 의향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약학 박사학위보다 더 가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MDiv는 없지만 석사학위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직원으로 일하고 싶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MDiv는 어디 출신입니까? 그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죠, 박사 학위가 있다면, 오, 그럴 수 있겠지만, 현실 세계에 적용되지는 않아요. 아시죠, 신약학 박사 학위는 가르치는 자리가 없다면 쓸모가 없어요. 거의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거리 전화 요금을 받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내려왔어요. 그녀는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거야?라고 물었고, 저는 그랜드 래피즈에 있는 사람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알았어요.

그녀는 그냥 내가 뭔가 말해줄게라고 했어. 나는 알았어, 그럼, 두 번째라고 했어. 그녀는 내가 이걸로 괜찮다고 했어.

우리가 10달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마무리하고 싶을 수도 있어. 야, 이메일 보낼게.

아니면 그때는 아직 편지였을지도 몰라. 그리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것은 흥미로운 시기였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 완전히 가난했어. 집이 있었지.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 어렸기 때문에 심지에 갔습니다.

그리고 로빈이 그런 돈을 받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창피했어요.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야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몇 년 동안 많은 계란과 땅콩버터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으로 200달러짜리 수표가 왔습니다. 그리고 로빈이 그것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축복해. 그녀는 말한다, 이거 싫어. 내가 말했다, 200달러? 땅콩버터 말고 다른 걸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힘들었어요. 우리 둘 다 힘들었어요. 무너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부양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게임이 아니라 믿음의 수행이 되었습니다.

오, 알았어요. 오, 주님, 이번 달에는 뭐 하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갑자기 조판을 좀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오, 글썄요, 저는 컴퓨터가 좋아요.

저는 이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Zondervan의 책에 히브리어와 그리스어가 들어 있으면 거의 전부 조판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 3년 동안 조판했습니다 .

주님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요점은, 때때로 우리는 그가 제공하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충분하지 않아요. 아니면 적절한 종류의 돈이 아니에요. 자선 단체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 첫 수표는 정말 힘들죠. 우리 대부분이 이런 일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걱정의 일부는, 글썄요, 신이시여, 당신이 우리를 돌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하실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은 그것이 당신의 부름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꽃아.

메뚜기. 내 작은 메뚜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대할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에 걱정의 일부는, 좋아, 내가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제 아이들은 옷 없이 지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속옷을 사러 구세군에 가는 걸 좋아해요. 신은 그게 요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모든 걱정은 제이슨이 말씀하신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정말로 신에 대한 우리의 관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합니까? 그리고 그것은 단지 그분의 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방식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코 제 아이에게 구세군에서 속옷을 사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고 속옷.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이... 제 친구들이 거기서 옷을 다 사요.

그들은 그것에 완벽하게 만족합니다. 그들은 그것에서 가장 큰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세군의 중고품 가게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중고 속옷을 주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가는 중고품 가게 어디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온 마음으로 그분의 왕국을 추구하고, 그분의 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삶의 기본적인 필수품을 그분이 선택하신 대로, 그분이 선택하신 방식으로, 그분이 선택하신 양과 질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살고, 그분의 왕국에 집중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도전, 내일 겪게 될 모든 도전을 우리는 내일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좋아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 장을 정말 깊이 파고들기 시작하면요. 우리 모두 몇 장의 그림을 봤나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폭신평신평하고, 예쁘고, 금으로 장식된 프레임. 결국, 정말, 정말 어려워요

이것은 산상 설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빌 마운스 박사의 글입니다. 이것은 세션 13, 마태복음 6:25,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걱정과 신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글입니다.